

한림원 “역사적 경험 다룬 한강, 궁극은 진실 추구”

선정기관 대표, 시상 연설...“흰색·빨간색, 죽음과 삶 의미”
“부드러운 목소리로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상실감 말해”

노벨문학상 선정 기관인 스웨덴 한림원이 10일(현지시간) 한강의 작품 세계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맛손은 한강의 주요 작품을 관통하는 색상이 ‘흰색’과 ‘빨간색’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갖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녀의 (작품 속) 목소리가 매력적일 만큼 부드러울 수는 있으나,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아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흰색과 빨간색은 한강이 작품 속에서 되짚는 역사적 경험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맛손은 2021년 소설 ‘작별하지 않는

다’를 언급하며 “한강의 작품에서는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가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한강의 작품은 “결코 잊어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소설 속) 인물들은 상처를 입고 부서지기 쉬우며 어떤 면에서는 나약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발견을 내딛거나 질문을 던질 만큼의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맛손은 스웨덴 한림원의 종신위원 1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노벨상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공식 시상 연설을 통해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호명한다.

한림원은 앞서 10월 수상자 발표 당시에는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그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 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가 됐다”고 짧막하게 수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아스트리드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시상식 개최사에서 문학상과 관련

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il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소개했다.

비딩 이사장은 또 과학·문학·평화상

시상이 “오늘날의 부정한(wicked)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제시하지만, 모두 맹목적 운명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희망을 제공한다”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메달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문학, 생명 파괴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

●한강 수상 소감
“언어의 실타레 따라
마음 깊은곳 들어가면
다른 내면과 마주해”

한강이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10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시청 ‘블루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강은 이날 소감에서 어린 시절 비를 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를 글 쓰는 일에 비유했다.

그는 “저는 여덟 살 때 오후 산수 수업 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폭우 가 쏟아져 다른 아이들과 건물 처마 밑 에서 비를 피하던 일을 기억한다”고 운을 폈다.

이어 “길 건너편에는 비슷한 건물의 처마 아래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보여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다”며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그 비 에 팔과 다리가 젖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나란히 비를 피하는

사람들과 길 건너편에서 비를 피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로서 살고 있었다”며 “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고,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한강은 또 “책을 읽고 글을 쓴 시간이 돌아보면 저는 이런 경이로운 순간 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며 “언어의 실타레를 따라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른 내면과 마주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강은 연회 말미에 연회장 가 운데로 이동해 약 4분 동안 소감을 말했다. 행사 진행자는 한국어로 “노벨문 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돼 영광입니다”라며 한강의 이름을 불렀다.

한강은 연회에 앞서 스톡홀름 콘서 트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노벨상 증서와 메달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강 소개 영광”...연회장 울려 퍼진 한국어

연회장 스웨덴 대학생 사회자 한국어 깜짝 소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 게 돼 영광입니다.”

10일(현지시간) 오후 스웨덴 스톡홀 름 시청사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 연회장에 뜻밖의 ‘모국어’가 울 려 퍼졌다.

소설가 한강의 수상 소감 차례를 소 개하던 스웨덴 대학생 사회자가 한국 어로 그를 깜짝 소개했다. 언론사에 사 전 배포된 프로그램 큐시트에는 없던 내용이다.

연회에 초대된 칼 구스타프 16세 스 웨덴 국왕, 올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를 비롯한 귀빈 1천500여명은 물론, 생중계된 연회를 통해 한국 문학의 위 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순간이었다.

이날 연회에 앞서 스톡홀름 콘서트

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도 당초 한국 어로 한강을 호명할 예정이었으나 막 판에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문학상 시상 연설을 한 엘렌 맛손 종신위원은 당초 연설문을 스웨덴어로 낭독한 뒤 마지막 두 문장을 한국어로 호명할 예정이었으 나 영어로 한강을 무대로 안내했다.

자칫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의 집중력과 무게감이 흐 트릴 가능성을 우려해 계획을 변경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번역 의뢰를 받았던 박옥경 번역가는 “시상식을 며칠 앞두고 (맛 손 측에서)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 영어로 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 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노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컬센터 2, 3층
☎ 062.430.202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www.ct119.co.kr

민심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시티병원
시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

2023.01.01 - 2025.12.31
관절전문병원
SPECIALTY HOSPITAL OF KOREA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